번뇌의 창고 '無明住地'

〈무명주지〉



지안 스님의 승만경 강화

⑭ 번뇌

"번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지(住持)번뇌와 기(起)번뇌입니다. 주지번뇌는 또 네 가지가 있습니다. 견일처주지(見一處住地), 욕애(欲愛)주지, 색애(色愛)주지, 유애(有愛)주지입니다. 이 네 가지 주지번뇌가 일체 기번뇌를 일으킵니다. 기번뇌란 것은 찰나의 마음이 찰나에 서로 응하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마음이 서로 응하지 않는(心不相應) 것은 시작이 없는 무명주지(無明住地)라 하나이다.

세존이시여, 이 네 가지 주지의 힘이 온갖 상번뇌(上煩惱)의 의지하는 곳이며 종자이지만, 무명주지에 비하면 산수나 비유로 미칠 수 없나이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아서 무명주지의 힘은 저 네 가지 주지의 힘보다 매우 큽니다. 마치 악마 파순(波旬)이 저 타화자재천(他化自在天)에서는 그 빛깔과 힘과 목숨과 권속과 여러 가지 도구가 가장 자재하고 뛰어나듯이 이 무명주지의 힘은 저 네 가지 주지의 힘보다 매우 크며, 항하의 모래와 같이 많은 상번뇌의 의지할 데가 되며, 또 네 가지 번뇌로 하여금 오래오래 머물게 하므로, 아라한이나 벽지불의 지혜로는 끊을 수 없고, 다만 여래의 보리의 지혜라야 끊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존이시여, 무명주지의 힘이 가장 큰 것입니다."

불교는 괴로움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번뇌를 다스릴 것을 주장하는데, 이 번뇌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여러 가지 행상으로 설명한다. 〈승만경〉의 이 대목에서 번뇌에 대하여 매우 심도 있게 설명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번뇌란 마음을 교란하는 것으로 선정에 들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입아비달마론〉에는 번뇌란 말이 번란핍뇌(煩亂逼惱)를 줄여 번뇌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범어의 어원은 클레사(klesa)인데 몸과 마음을 교란하고 오염시키며, 미혹되게 함으로써 평온에 머물지 못하게 하는 정신작용을 총칭하는 말로 괴로워하고 학대받는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대목에서는 번뇌의 종류를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주지번뇌는 번뇌의 근본을 말하고 기번뇌는 주지번뇌로부터 파생되어 생겨나는 번뇌다.

이 번뇌를 견도위(見道位)와 수도위(修道位)에서 끊는 종류를 나눠 견혹(見惑) 수혹(修惑)이라고도 말하는데 견일처주지는 견혹이며, 욕애주지는 수혹이다. 수혹을 사혹(思惑)이라고도 한다. 견혹은 깨닫지 못한 무지의 상태에서 견도위에 들어가 사성제(四聖諦)의 이치를 관찰하여 끊게 된다. 욕애주지는 욕계의 사혹으로 오욕락 등에 집착하여 욕계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번뇌다. 색애주지는 색계에서 일어나는 사혹이며 유애주지는 무색계에서 일어나는 사혹이다. 무명주지는 곧 근본무명으로 모든 번뇌가 이를 의지해 일어난다. 파순(波旬)은 욕계 육천의 임금으로 선정을 방해하는 마왕(魔王)이라 한다.

불교적 관점에 있어서 인간의 현실은 혹(惑), 업(業), 고(苦)가 악순환하는 과정으로 보고 그 실존의 실상은 고(苦)라는 한마디로 요약되며, 이 '고'를 벗어나기 위해서 번뇌를 끊을 것을 제시한다. 초기불교부터 부파불교 대승불교로 이어지는 번뇌론은 번뇌가 야기되는 인간의 심리현상을 관찰하고 분석하면서 발전되어 왔다. 인간이 번뇌로 인해 미혹해져 그릇된 업을 짓고 고통을 당하며 생사의 윤회를 거듭한다고 보는 것이다. 번뇌가 없어질 때 열반이 누려지며, 해탈이 얻어진다고 한다. 그래서 번뇌를 깨달음을 방해하는 장애로 보아 번뇌장(煩惱障)이라 하였다. 무명주지는 모든 번뇌의 근원이 되는 근본무명으로 모든 번뇌의 의지처이고 생사의 근본 원인이 되는 것이다. 또 아집(我執)과 법집(法執) 중에 법집이 일어나는 곳으로 그 힘이 가장 강하여 끊기 어렵다고 한다. 주지(住地)란 머물고 있는 땅이라는 뜻이지만 근본을 지칭하는 말이다. 또 번뇌가 머무는 곳이 다섯 군데라 하여 오주지(五住地)를 있는데 무명주지가 다섯 번째이고 앞의 네 주지는 분단생사를 받고 무명주지는 변역생사를 받는다고 설명하기도 한다. '마음이 서로 응하지 않는다(心不相應)'는 말은 번뇌가 매우 미세해 주관과 객관의 서로 대(對)하는 상태가 아니라는 뜻이다.

〈반야불교연구원장〉

대승불교 완성하는 관음신앙



대풍 스님의 진심법문

㊲ 관음신앙의 올바른 견해

발보리심(發菩提心)

불자 여러분! 대비심에 뿌리를 둔 서원과 원생은 중생을 구호하겠다는 각오입니다. 그리고 대비심에 바탕을 둔 발보리심은 바로 성불을 위한 의지이며 각오입니다. 위없는 보리는 열반과 서로 다릅니다. 열반(涅槃)은 자신의 행복을 위한 수행의 결과라고 한다면, 보리(菩提)는 중생을 구제하려는 서원(誓願)과 중생을 구제하는 대비심의 실천을 근본으로 완성된 수행의 증과(證果)이기 때문에 열반(涅槃)과 보리(菩提)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서원과 원생 그리고 자비심에 의한 발보리심은 관음신행 뿐만 아니라 대승불교의 모든 신행에 있어서 기본적인 실천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중생을 구하겠다는 이타적인 의지가 결합되었을 때 비로소 대승불교의 신행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60권 화엄경〉에서는 '발보리심'을 설하는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선재동자는 관자재보살의 발에 예배드리고 오른쪽으로 무수히 돌고 합장하고 서서 말하였다. "성자시여! 저는 이미 위없는 보리심을 발했지만,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도를 닦는지 알지 못합니다. 듣건대 성자께서 잘 가르쳐 주신다 하오니 저에게 말씀해 주소서."

관세음보살이 말하였다. "착하다. 선남자여! 그대는 이미 위없는 보리심을 내었구나. 나는 보살의 대비행 해탈문을 성취하였다. 나는 끊임없이 이 대비행의 문으로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인도한다. 나는 대비행의 문에 머물러 항상 모든 여래의 처소에 있으며, 모든 중생의 앞에 두루 나타난다. 보시로써 중생을 거두어 주기도 하고, 사랑스런 말과 이롭게 하는 행과 같은 일로써 중생을 거두어 주기도 한다. 또 육신을 나타내어 중생을 거두어 주기도 하고, 온갖 불가사의한 빛과 맑은 광명을 나타내어 중생을 거두어 주기도 하며, 음성과 위의의 설법으로써 거두어 주기도 하며, 신통 변화를 나타내기도 하며, 그 마음을 깨닫게 하여 성숙시키기도 하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함께 있으면서 성숙하게 하기도 한다."고, 자비와 중생구호의 의지가 결합된 위없는 보리심은 곧 보살행과 보살도를 닦는 것이라고 설하고 있습니다.

불자 여러분! 지금까지 관음신앙의 신행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음신앙을 올바르게 신행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관세음보살의 종교적 가피력을 믿는 신앙적 확신을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관세음보살의 서원과 원생 그리고 자비심에 대해 굳건히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수행자 스스로가 타력적 수행에서 자력적 수행으로 영역을 변화시켜 중생들을 고통에서 구제하겠다는 대자비의 서원을 일으키고, 윤회 속에서 고통 받는 중생들의 괴로움을 모두 제거하기 위해 스스로 고통의 세계에 태어나는 원생을 실천하여 자비행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필경에 스스로 정각을 이루고 말겠다는 불퇴전의 각오와 일체중생을 꼭 구제하겠다는 의지인 위없는 보리심을 발(發)해야 합니다.

관음신앙은 수행자가 처음엔 관세음보살의 가피력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수행을 출발하지만, 수행력이 점차 깊어지면 차후엔 수행자 스스로가 관세음보살의 화신(化身)이 되어서 서원과 보리심을 일으켜 일체중생을 고통에서 구제하는 대비심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관음신앙을 올바르게 신앙하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대승불교의 실천이념은 상구보리(上求菩提) 하화중생(下化衆生)입니다. 관음신앙은 바로 이러한 대승불교 이념을 완성하는 신앙입니다.

〈밀양 사천왕사 주지〉



지흐스님의 禪으로 읽는 '맛지마니까야'

⑫ 올바른 견해의 경 ③

처음부터 괴로움이란 없었다

"벗이여, 고귀한 제자가 이와 같이 무명을 잘 알고, 무명의 발생을 잘 알고, 무명의 소멸을 잘 알고, 무명의 소멸에 이르는 길을 잘 알면, 그는 완전히 탐욕의 경향을 제거하고 분노의 경향을 제거하고 '나는 있다'라고 하는 자아의식의 경향을 제거하고 무명을 버리고 명지를 일으키며 지금 여기에서 괴로움의 종식을 성취합니다. 이렇게 하면 고귀한 제자는 올바른 견해를 지니고, 견해가 바르게 되고,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고, 올바른 가르침을 성취합니다."

무엇이 괴로움일까? 크게 두 가지 괴로움이 있다. 한 가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움직여,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느끼는 괴로움이고, 다른 한 가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나와 안다고 느끼는 나, 둘 다 자신이 아닌데 그 둘을 자신이라고 느끼면서 겪는 괴로움이다.

대부분은 첫 번째 괴로움을 괴로움이라 알고 겪을 것이다. 그러나 그 첫 번째 일로 겪는 괴로움은 진짜 괴로움이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일어난 일이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다'는 지금 마음으로 겪는 느낌을, 일어난 일과 무관하게 일어난 일로 느낄 뿐이다. 사실 지금 일어난 일은 과거의 그가 원했던 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과거의 마음과 지금의 마음이 조건에 따라 다르게 느끼기 때문에 지금 마음으로서는 뜻대로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된다. 이렇듯 계속 재생되는 삶을 영위하면서 첫 번째 괴로움을 소멸하기는 참으로 어렵다. 무명이 다시 무명을 낳아, 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자신이 내치는 꼴이 되는 탓이다.

두 번째 괴로움이 참으로 괴로움이고, 참으로 번뇌이다. 스스로는 온전한 그대로이다. 그러니 모르는 일도 없고 아는 일도 없다. 일어나는 그대로가 옳은 것도 아니고 옳지 않은 것도 아닌 것이며, 되게 하여야 하는 완성도 없고, 무너뜨려야 하는 소멸도 없는 '물질은 괴로움이다'라고 아는 마음밖에 없다. "이것이 나다, 나의 것이다, 나의 자아다" 하는 지혜가 없는 무명이 어리석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두 번째 괴로움에 대한 걱정을 하는 사람은 참으로 만나기 어렵다. 수행을 오래한 사람조차도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알아듣기 어려워하고, 이해하는 사람이 흔치 않다. 무명으로 괴로움이 생겨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괴로움의 소멸은 무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다. 무명을 알게 되면 괴로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괴로움이 없었음을 알게 된다. 사라지는 것이 있으면 무명은 끝나지 않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그러니 사라지게 하려고 애쓰지 말고, 무엇이 무명인지를 골똘히 사유해야 하는 것이다.

사유는 저울이다. 사유의 저울 양끝에 올려놓은 그릇이 없다. 그렇다면 올바른 사유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올바른 저울은 언제나 균형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저울 끝에 그릇을 만들어 무게를 달려는 놈이 분명히 생긴다. 무게를 다는 그놈을 밀밀히 관찰하여야 한다. 그것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그러면 그놈의 실체를 온전히 다 볼 수 있다. 오온덩어리가 바로 무명인 줄 알아야, 무명을 움직이면 무명이 쌓인다는 것을 알고, 움직임 없는 마음을 지킬 것이다.

모든 말, 입을 열고 하지 않은 줄 누가 알까?
말이 흘러 귀를 통과하게 하지 말라
입으로 뱉는 말 아니니
듣는 말, 입으로 나오는 말 없으니
귀담아 들을 일 없네
속이는 말 같지만
그 속에 들어야 할 소리, 없는 소리 있다네
숨겨 놓은 것은 아니지만 숨겨 놓은 것처럼 보일 뿐
가만히 듣고, 가만히 두어 보게
모든 것 그 곳에 다 있으니

〈(사)여시아문 선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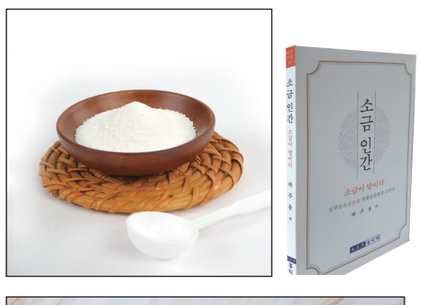
건강한 수행을 위한 기적의 소금

해양심층수의 모든 미네랄을 그대로 담은 최초의 제품, 소금이 아닌 소금, 기적의 소금으로 불리고 있는 소금이 있다.

강원도 고성 수평선 넘어 6KM 떨어진 깊은 바다, 수심 605m의 깊은 심층수를 길어 올려 첨단공장에서 정성을 다해 정성을 다해 만든 건강을 위한 제품입니다.

깊은바다 해양심층수의 깨끗함, 풍부한 미네랄을 살려 나트륨은 적고 칼슘, 마그네슘, 칼륨 등 바다의 모든 미네랄은 풍부한 소금, 모든 미네랄은 들어 있지만 쓴맛이 없는 부드러운 짠맛의 소금, 엠큐해양미네랄 제품을 한포 한포 물에 타서 드시면 새로운 건강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씨아드의 첨단 기술과 생명살림의 마음을 담아 물에 타서 수시로 마실수 있도록(1포/500ml) 개발했습니다.
김오곤 원장 처방에 따라 몸에 좋은 침향을 첨가한 제품도 있습니다.
좋은 제품 드시고 모두 건강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주) 오씨아드 엠큐해양미네랄 제품은 강원도 고성 해양심층수 특화산업단지에 있는 해양심층수 엠큐눈소금 전용공장에서 생산 판매됩니다.



엠큐해양고미네랄(75,000원)
3g x 31포 x 2박스 + 180g 1병





김오곤원장의 엠큐해양고미네랄 침향
(125,000원)
3g x 31포 x 3박스=93포(침향 7% 함유)

구입하시는 분들에게는 "소금인간- 소금이 답이다" 책(18,000원판매중)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주문 전화 및 대리점 희망 전화 : 033-631-9976, 010-5022-0442
www.mqsalt.com, www.ociad.com

탈 종 공 고

- 사찰명 : 진주정사
- 주 지 : 석윤 (속명 : 윤정오)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창렬로 205-16

위 사찰과 위 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3일

대광불교 조계종 종정 법하

탈 종 공 고

- 사찰명 : 형통사
- 주 지 : 혜운 (속명 : 진도국)
- 주 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월용1길 53-111

위 사찰과 위 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4일

한국불교 미륵종 총무원장 법하